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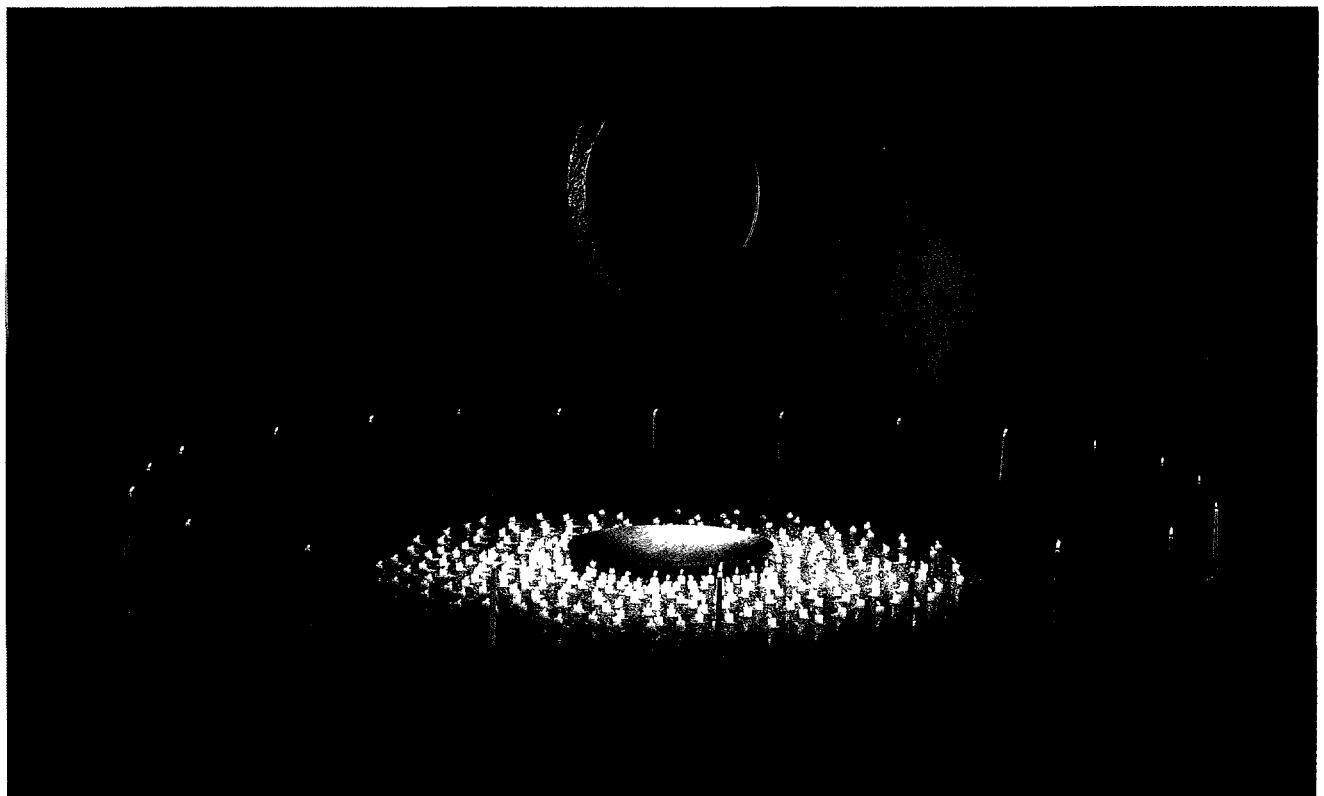
# 촛불과 대보름달의 상징적 의미

강찬균(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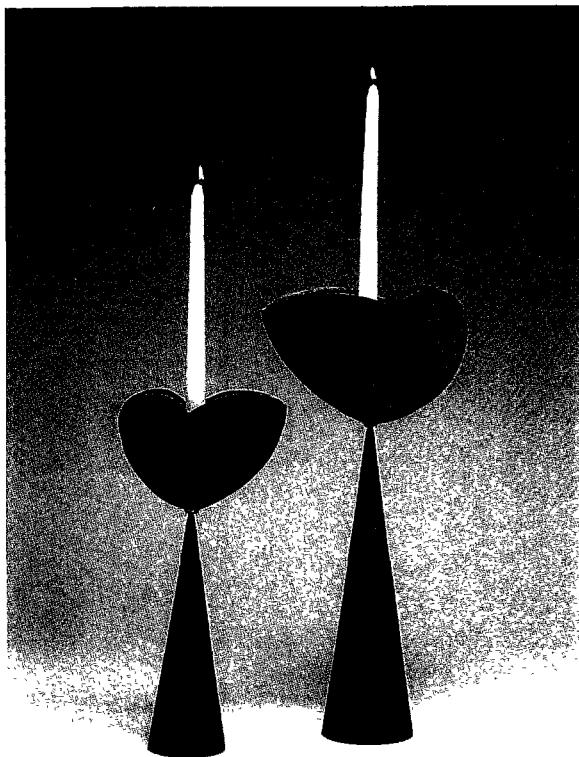
**序** 본 작품 연구에서는 존재의 지향성을 충족시키며 이상적인 삶을 위한 인간의 염원이 제작 동기가 되었다.

고난 앞에서 혼신을 다해 기원하는 인간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진한 감동을 전해준다. 이러한 인간의 내적 갈등과 성취를 위한 기원으로부터 삶의 상징적인 조형 언어를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작품 연구는 상징적 은유로써 삶의 반영 그리고 참다운 삶을 위한 염원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작품 속에 등장한 촛불과 정월 대보름달은 우리의 종교나 민간 신앙의 상징적 物體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불은 인간에게 벽사진경(壁駁進慶)의 영험으로서 언제나 깨어 있는 존재의 상징이고 순수하고 순결한 의미로 전해져왔을 뿐더러 나아가 生成으로서의 존재, 존재로서의 생성을 의미한다. 한편 정월 대보름달은 만사형통이나 완성의 상징으로서, 높은 하늘에 정감 어리게 떠 있으면서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영원과 전체성을 의미하는 둥근달이야말로 궁극적 진리의 완전성과 영원불멸성, 순환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촛불



적동, 백동, 황동, 알루미늄 ø6m H 3.5m



적동, 나무, 21×9×44cm

과 대보름달, 이 두 가지의 상징적 물체는 서로 現象 관계에 의한 구조적 계층을 통하여 만남을 이루어내고, 소원 성취나 소망을 이루게 하는 대상으로 존재하게 된다.

**本**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본 연구 작품은 촛불과 대보름달의 상징적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며, 나아가 우리 민족의 멋과 얼로서 볼 때, 地上의 불과 天上의 둥근달은 “하나”가 됨을 뜻하여 소원 성취의 상징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Group I

地上에 있는 촛불의 잔잔한 움직임과 공중에 떠 있는 둥근달의 흔들림은 염원의 교감 상태를 나타내며 소원 성취를 위한 일체감을 전하게 된다. 이것은 우주의 질서와 조화 속에서 완전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이간의 소망을 상징적인 시각 형태를 빌려 조형화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품 발표일도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선정하게 되었고 형식의 변화를 위하여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긴 정월 대보름의 대표적 놀이인 “강강술래”와 “낫다리 밟기” “월월이 청청” 등에서 볼 수 있는 유희성을 살리고자 하였다. 즉, 22개의 촛불들을 원형, 또아리형, 종대형 등으로 가변적 전시를 시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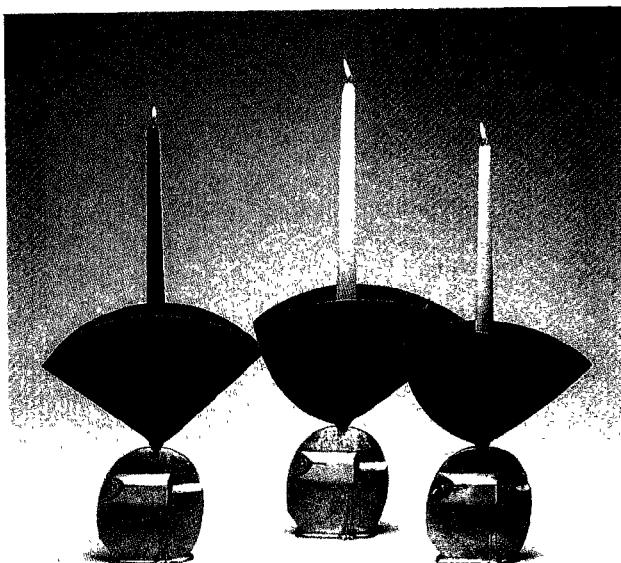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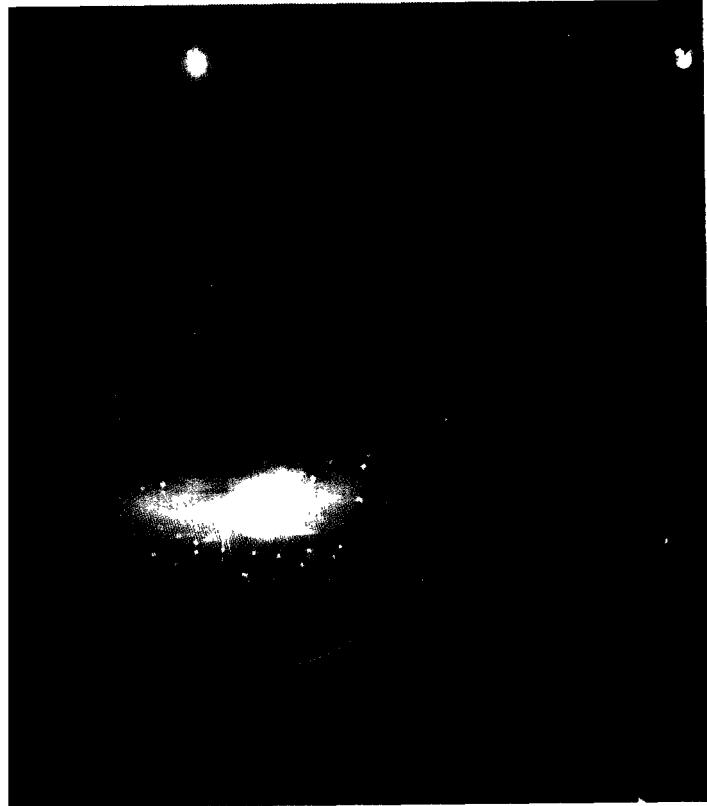
레이저 사진, 백동, ⌀98, ⌀50cm

이같이 작품 제작에 동기성을 부여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과거에 제작해왔던 자신의 작업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20여 년간 본인이 세작한 우리의 멋과 얼에 대한 작품들 중에는 해, 달, 별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이룬 풍속과 살아온 터에 깃든 가락이 어울려 있는 것이 큰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 작품은 앞선 작품 경향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

### Group II

소원 성취를 위한 인간의 염원은 빈간 신앙에 나타난 생명의 나무인 신단수(神轉樹)를 통하여 해소되기도 하였고, 이러한 神木은 생명성을 지닌 나무로서 만물을 창조하는 生命樹이며 하늘과 땅, 이상과 현실, 삶과 죽음을 연결해주는 대상으로 상징되어져 왔다. 여기서 스탠드 형 촛대는 소나무 잎의 형태가 위, 아래로 향하면서 전체의 구조가 天界, 地上界, 人界的 三界가 조합되어 하나의 작품을 이루었다.

과거의 전통적 공예에서는 物 그 자체가 |의|이었으나 현대공예의 새로운 개념은 손을 대변하는 機械的 形態 뿐 아니라 정신을 대변하는 觀念的 形態 또는 狀況의 상징으로까지 확대 발전해가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우주목(宇宙木)의 내용을 담고 있는 스탠드 형 촛대와 잎의 작품들은 창조와 관조의 세계를 동일 선상에 놓음으로써 대상과 자아의 合 을 실현시키고 있다.



적동. 30×10×30cm

### Group Ⅲ

민간 신앙에서는 地上의 지극 정성과 天上의 뜻이 “하나”가 될 때 소원 성취를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상적 합일은 작품의 표현적 측면에서는 찾을 수 없을까?

이에 대한 풀이로써 내용적인 ‘合一’을 Group I에서 추구하였다고 한다면 형식적인 ‘合一’은 Group II에서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현대예술이 과학과의 만남을 통하여 서로 유리되지 않으면서 조화를 이를 때 그 가치가 극대화된다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 과학의 산물인 Hologram과 금속 작품과의 만남을 시도하였다. Hologram의 각변하는 색상은 유난히 우리 전통의 색상과 유사하여 작품 연구의 좋은 대상으로 떠올랐으며 나아가 예술과 과학의 하나됨을 이루어 주제를 전달하여준다.

人間의 삶 속에 수반되는 苦의 현상에 대하여 촛불과 정월 대 보름달이라는 상징적 물체를 통해 소원 성취를 기구하는 모습에서 發想된 본 작품 연구는 크게 3개의 Group, 상징적 의미를 지닌 촛불과 대보름달, 소나무(神壇樹), Hologram으로 전개된다. 위와 같은 주제의 조형화 작업은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안점을 갖고 있다.

첫째, 벽사진경(壁邪進慶)의 영험으로서의 촛불과 소원 성취를 뜻하는 정월 대보름달의 합일, 그리고 대상과 자아의 합일, 현대과학과 예술과의 만남으로 이끌면서 “하나”가 되어 뜻을 성취하는 상징적 은유를 강조하였다.

둘째, 종래의 작품 전시가 단위체별로 고정적이고 피동적인 전시였던 것에서 그 틀을 깨고 일군(一群)의 작품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 이동, 변화하는 가변적 전시 배열의 변화 등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작품 전시는 개체성보다 전체성을 중시하고 모든 작품이 서로 관계하면서 전시의 효과를 높이게 하였다.

본 전시는 과거의 전통적 공예 개념에서 비롯되는 개체성을 중시하는 기능적 형태(Functional Form)를 전체성을 떤 관념적 형태(Conceptual Form)로 전개하면서 관객과 대상간의 대립적 관계를 타파하고 창조와 관조의 세계를 동일선상에 놓음으로써 대상과 자아의 一元的合一을 실현시키고 있다.

92학년도 研究發展로 제작한 작품들을 모은 본 전시가 새롭게 확대 전개된 미의 개념이 부수적이고 장식적인 美의 창조가 아닌 관조적 대상으로서의 절대적 가치의 세계로 전개시켜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시도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

- 본논문은 연구교수 기간에 연구한 논문임